

티베트 수행 기본은 '보리심과 이타행'



정목 스님이 말하는 '인호의 엄불선' <6>



대승의 관문 '보리심'

불법문중에 입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고, 그 지혜를 한결같이 얻으려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지만 수행문에 따라 믿음을 성취하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다. 엄불수행에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무량한 자비광명에 대한 믿음을 결집하는 것이 신성취(信成)입니다. 이 믿음을 성취한 다음 단계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보심 혹은 발심(發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발심으로 인하여 심신을 갖추셨습니다. 첫째는 법신(法身)이니 원심(圓心)을 증득하셨습니다. 둘째는 보신(報身)이니 만선(萬善)을 감득(感得) 하셨습니다. 셋째는 화신(化身)이니 인연따라 출현하십니다. 법

나라, 선법을 닦아 증생을 구제하는, 곧 해행(解行)이 일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은 자각이든지 자비광명에 의지함이든지 어떤 수행문에 서도 반드시 발심해야 합니다. 발심은 대승의 관문이고, 근본정신이며, 대승불교의 실천철학입니다. 발심이 곧 대승이요, 정각입니다.

원효는 <무량수경중요>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정인(正因)은 보리심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마음의 열매가 되는 과보는 비록 보리이지만 그러나 꽃이 되는 과보는 정토에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리심의 양은 광대하고 끝이 없으며 길고도 멀어 무한하다. 그러므로 능히 광대하고 가없는

달라이 라마 한국인 제자 청전 스님 '입보리행론'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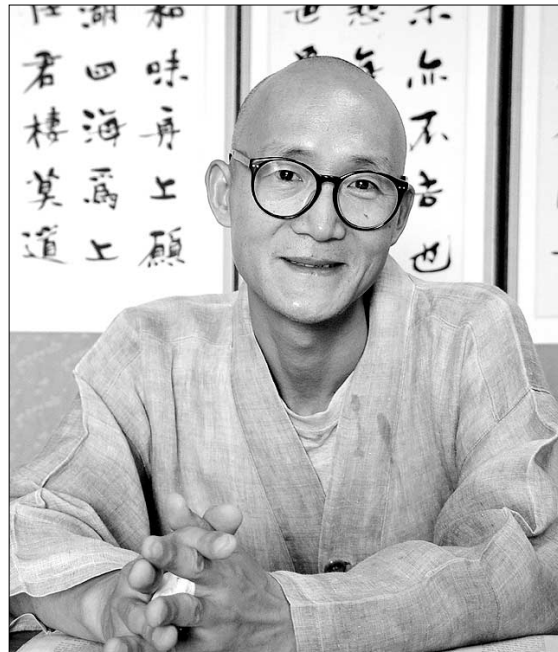
"수행의 기본은 큰 자비심을 바탕으로 보리심을 일깨워서 이타행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 대보리심, 대자비심입니다."

최근, 3년만에 귀국한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 제자 청전 스님은 티베트의 불교 수행은 발보리심과 자비심이 근간을 이룬다고 말했다. 7월 6일 부산 관음사에서 만난 청전 스님은 화두가 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 없듯, 보리심을 일깨우는데도 순서가 있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간단치 않다고 답했다.

"티베트에서는 육바라밀, 사무량심(四無量心: 慈悲喜捨)을 바탕으로 한 수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빨리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법문은 많이 하는데 육바라밀, 사무량심을 기본으로 보리심을 일깨워서 증생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수행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보리심 일깨우는데도 순서가

청전 스님은 "개인의 삶과 지구촌의 모든 뿌리가 고통(苦)이고 무상(無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교화적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바라밀, 사무량심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와 무상에 대해 바로 알 때 보리심을 발하게 되며 이타행을 실천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청전 스님은 스승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승은 삶의 무상함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법을 설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준다. 그래서 인내하고 보시하고 고행하고 참선하는 수행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또 수행자는 자(慈) 비(悲) 회(喜) 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과 우애의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여 제거해 주는 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자리·이타의 결수를 말하는 청전스님.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곧 보살행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보시·지계·선정'을 삶의 축으로

출가 후 한국의 선원에서 10년 동안 수좌로 정진하던 중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안고 인도를 찾았던 청전 스님. 달라이 라마에게서 의문을 해결하는 진술하고도 분명한 답을 얻은 이후 17년 동안 보시, 지계, 선정의 삼박자를 삶의 축으로 삼아 수행하고 있다. 가진 모든 것을 보시하고 지계(持戒)를 생명으로 삼으며, 선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선방에 앉아 정진하는 것을 최고의 수행으로 삼았던 스님에게 이제 보살행의 실천은 삶이자 곧 수행이 되어 있었다. 스님은 라다크 현지민들에게 한국 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의약품, 물고기 등을 보시하고 있지만 수행의 방편일 뿐이라며 밝히길 꺼려했다.

삼심 꽃피우는 씨앗 역할

이치 알고 지혜 원하면 정각

신은 무수한 번뇌를 모두 다 끊고 원심을 증득한 체(體)입니다. 원심은 곧 일심(一心)입니다. 보신은 무량한 선법(善法)을 모두 다 닦은 상(相)입니다. 무량한 공덕을 갖춘 것입니다. 화신은 무변한 증생을 모두 다 구제하는 용(用)입니다. 삶의 모습과 근기에 따라 방편을 보여 교화하십니다. 이 삼심을 꽃피우는 씨앗이 보리심이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심 혹은 발보리심이란 무엇인가? 보리(菩提)는 번어인 보디(bodhi)를 음역한 것으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발보리심(發菩提心)은 삼심을 성취하고자 일으킨 마음인데, 이로써 무상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발심은 지혜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무수한 번뇌를 모두 다 끊기를 원하고, 무량한 선법을 모두 다 닦기를 원하고, 무변한 증생을 모두 다 구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궁극적이고 참다운 지혜는 번뇌를 멸진할 뿐

의보(依報: 유정이 의지하는 국토)의 정토와 장원하고 무량한 공덕한다. 보리심을 제외하고는 저 의보와 정토를 능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 마음을 살하여 정토왕생의 정인(正因)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불법문중에는 삼보에 귀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지혜는 구하지 않고 복만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사탄 믿음의 무리입니다. 지혜를 구하지만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믿음이 성취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믿음을 성취하여 발심하였으나 끝끝 몰려서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이치를 모르고 발심한 때문입니다.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원하는 순리발심(順理發心)에 이르른 곧 정각(正覺)입니다. 심해초발심주에 올라 범부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엄불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일심을 증득하고자 수행합니다.

<양산 정도원 원장>

태국 '염불위빠사나' 국내 첫 소개

호두마을선원, 아짠 차 선사 수행법문집 출간



'염불 위빠사나'가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천안 호두마을선원이 최근 펴낸 아짠 차(Phra Ajahn Chah, 1918~1991·사진) 선사의 수행법문집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김영권·김혜양 번역)에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염불위빠사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염불 및 위빠사나 수행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태국의 고승 아짠 차 스님의 핵심 수행법 중 하나인 염불위빠사나는 집중력 증대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염

불수행(佛誦念)과 수행단계가 잘 밝혀져 있는 위빠사나의 장점을 접목시킨 탁월한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염불이 염송을 통한 정진집중과 선정을 강조하는 반면 위빠사나는 알아차림에 치중하다 보니 집중력이 약한 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염불과 위빠사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염불위빠사나는 태국 수행자의 대다수가 실천하고 있는 수행방편이기도 하다.

염불위빠사는 자신의 성향에 맞춰 '붓도(Buddho : 붓다의 주례)'라는 명칭을 염송하며 호흡관찰 등의 사념처관과 연계시켜 수행하거나, 염송없이 순수하게 위빠사나만 수행

하거나, 붓다의 공덕을 기리며 붓도 염송만 행해도 된다. 이 수행법의 특징은 붓다의 공덕을 기리며 심신을 견실히 다지면서 집중력과 알아차림의 힘을 견실히 다지면서 일상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이다. 바쁜 현대인이나 집중력이 약한 불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태국의 숲속사원 왓빠똥 분원과 서구 전역에 50여개의 사원을 세워 태국 불교를 전세계에 알린 아짠 차 선사. 그의 수행법 핵심은 염불위빠사나와 함께 선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놓아버림(放下)'에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일체를 (심지어 불법까지도) 놓아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아짠 차 스님은 '사물은 물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무상한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면, 고통의 근원인 집착과 무명에서 벗어나 참된 법(法)을 발견하게 된다는 법론이다.

김재경 기자

佛經漢文科

▶ 동신반·출석반 募集 ◀

- 募集期間 ▷ 후기: 7월 15일 ~ 8월 15일 (기간연수)
- 教育科目 ▷ 무량의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관·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교양한문(생활한자 5,000자) ▷ 간체자(중국어한자) ▷ 기타교양과목 (특강)
-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출석반 동일
-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통신반·출석반 동일) ▷ 월1회 출석특강 (통신반) ▷ 출석반 주 1회 출석 (대구, 부산지역)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일음일미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한자원리지도사 자격인증서 수여(심사후) ▷ 전문 연구과정 수강자격 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 國際語文研究所
 所長·哲學博士 崔光永
 우편: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법요집·기초교리集 과도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자료로는 철학과 과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당인사들께서 교과재도 활용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철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배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들에게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법 요 집

- 삼귀의
- 선양행한다
- 반야심경
- 일점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찰서원
- 산화가
- 기타찬불가

기 초 교 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심마론

■ 기획: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02-772-9052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지름: 20~30cm
- 원산지: 태국
- ※ 태국에서 영아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상태에 보관됨
- 가격: 1개 35,000원
-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호서지역 제외)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견우비면(역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마	250,000
면(역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40,000
무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마	180,000 ~ 250,000
모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마	140,000 ~ 170,000
마(역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배 60,000 ~ 셔츠 30,000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대우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 P : 011)549-8130